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		수험번호				3			제 () 선택
----	--	------	--	--	--	---	--	--	----------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고통이 따르지 않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 욕망을 절제한다.
- ② 개인의 평온한 생활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한다.
- ③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에게 귀의한다.
- ④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한다.
- ⑤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파악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다.

2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간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감각 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다. 하지만 아름다움 자체와 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.
 을: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.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척도이고,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.

- ① 갑: 누구나 철학적 탐구 없이 참된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.
- ② 갑: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 아름답게 된다.
- ③ 을: 각 개인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.
- ④ 을: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야 획득된다.
- ⑤ 갑과 을: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.

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사회주의적 계획은 농업, 수공업 등에서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있다. 사회주의 정책의 목표는 완전 고용, 보다 높은 생산,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 등이다.
 을: 완전 고용은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. 정부가 병에 지폐를 채워 묻은 뒤 사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파내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.

- ① 갑: 완전 고용은 필요를 고려한 분배와 공존할 수 없다.
- ② 갑: 완전 고용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.
- ③ 을: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.
- ④ 을: 완전 고용은 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이 사라질 때 실현된다.
- ⑤ 갑과 을: 완전 고용은 투자의 사회화를 배제해야만 달성된다.

4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서양의 도(道) 역시 천도(天道)를 궁구하므로 도는 같은 것이나 천도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. 나의 도는 한울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[守心正氣]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.
 을: 서양의 설(說)은 아버지와 군주를 부정하고 욕망의 표현을 장려한다. 서양인이 끼치는 손해를 알면 선(善)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된다. 사덕과 오륜 외의 모든 것은 이단이고 사설(邪說)이다.
 병: 서양의 법(法)을 본받는 것을 서양의 교(敎)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도와 기(器)가 나누어짐을 모르는 것이다. 우리의 도를 능히 행한다면 저들의 기를 행하는 것은 쉽다.

- ① 갑은 누구에게나 한울님의 지기(至氣)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.
- ② 을은 서양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모두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.
- ③ 병은 효제충신(孝悌忠信)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도라고 본다.
- ④ 을은 병과 달리 서학(西學)은 참된 도를 밝힐 수 없다고 본다.
- ⑤ 갑과 을은 경(敬) 수양이 이상 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본다.

5. (가)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 갑: 사물과 사람이 생겨날 때 반드시 이치[理]를 부여받은 후에야 본성[性]이 생기고, 기(氣)를 부여받은 후에야 형체가 생긴다.
 을: 사물에서 지선(至善)을 찾는 것은 의(義)가 마음 밖에 있다고 본 것이다. 지선은 마음의 본체이다.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.

(나)

- ① A: 사물은 인간과 달리 탁하고 치우친 이치를 부여받는다.
- ② A: 격물(格物)으로써 앎이 지극해진 후에야 효를 행할 수 있다.
- ③ B: 군자는 소인과 달리 견문을 쌓아 온전한 양지를 획득한다.
- ④ C: 이치는 마음의 조리(條理)이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.
- ⑤ C: 앎과 행함은 서로를 의지하므로[相須] 함께 나아가야 한다.

6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인은 노예와 달리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이다.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의 핵심이 비지배에 있음이 드러난다.
 을: 타인에 의해 개인의 자유 영역이 축소될 때 노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. 어떤 원칙으로 불가침의 영역을 구획하든지 자유는 언제나 '~로부터의 자유'이다.

< 보 기 >

ㄱ. 갑: 지배 없는 간섭이 발생해도 비지배 자유가 가능하다.
 ㄴ. 을: 어떤 경우에도 평등을 위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.
 ㄷ. 을: 불간섭 영역이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 영역도 확대된다.
 ㄹ. 갑과 을: 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 실현을 방해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7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중세 서양 사상가 을, 현대 서양 사상가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인간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. 인간과 신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에 따라 행위할 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.
 을: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다.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행위와 목적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.
 병: 우리 각자는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해야 한다. 즉 신 앞에 홀로 서서 그토록 큰 노력으로 그토록 큰 책임을 지면서 특정한 개별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.

- ① 갑: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바꾸기보다 사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.
 ② 을: 인간은 만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추구해야 한다.
 ③ 병: 도덕규범을 충실히 지킬 때 절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난다.
 ④ 갑과 을: 인간과 신의 합일은 곧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뜻한다.
 ⑤ 을과 병: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.

8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정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향한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시인(是認)되는 것이 확실하다. 공감(共感)이 우리에게 공공의 이익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된다.

< 보 기 >

ㄱ. 모든 시인의 감정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감정이다.
 ㄴ. 도덕적 구별은 행위와 성품 모두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.
 ㄷ. 덕의 존재는 이성의 판단이 아닌 쾌락의 느낌으로 알려진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9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'색(色)은 무상(無常)하다.'라고 관찰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다. 바르게 관찰하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. 이것이 마음의 해탈이다. '무상하다.'라고 관찰하는 것과 '그것은 괴로움[苦]이요, 내가 아니다[非我].'라고 관찰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.

< 보 기 >

ㄱ. 괴로움은 만물에 집착하는 갈애(渴愛)로부터 발생한다.
 ㄴ. 괴로움은 삶의 실상이며 인(因)과 연(緣) 없이 생겨난다.
 ㄷ. 괴로움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오온(五蘊)이 무상하게 된다.
 ㄹ.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윤회(輪廻)를 끊을 수 없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ㄷ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10. (가)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기질지성(氣質之性)은 이(理)와 기(氣)가 섞인 것이지만 어찌 기만 가리켜 말하지 못하겠는가? 사단도 기가 있지만 이가 발한 것이라 말하고 칠정도 이가 있지만 기가 발한 것이라 말한다. 을: 기질지성은 이가 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, 기질지성과 본연지성(本然之性)은 결코 두 성(性)이 아니다. 성이 이미 하나인데 정(情)이 어찌 두 갈래의 근원이 있겠는가? 병: 기질지성이 기호(嗜好)로서 그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지성(天命之性)도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. 천명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.</p>
(나)	

- ① A: 사단은 칠정 중 순수하게 천리에서 나온 것임을 간과한다.
 ② B: 기는 작용성을 지니므로 이를 주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.
 ③ C: 인간의 본연지성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상이함을 간과한다.
 ④ D와 F: 기질지성을 따르면 불선으로 흐르기 쉬움을 간과한다.
 ⑤ E: 탐욕에 따라 악행을 반복하면 천명지성이 변함을 간과한다.

11.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을 통치할 정치가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.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.

< 보 기 >
ㄱ. 국민은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합리적 견해를 갖는다.
ㄴ.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득표 경쟁을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.
ㄷ. 국민의 주된 역할은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12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본성[性]은 본래 소박한[朴] 자질이다. 본성이 없다면 작위[僞]가 가해질 곳이 없고 작위가 없다면 본성은 스스로 아름다울 수 없다. 본성과 작위가 합쳐진 후에야 성인(聖人)이란 이름이 이루어진다.
을: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정(情)만을 따르면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.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자질의 잘못이 아니다. 누구나 사단(四端)을 가지고 있다.

- ① 갑: 인(仁)은 인간의 본성을 해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.
② 갑: 의(義)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성정을 바꿔야 한다.
③ 을: 예(禮)의 단(端)은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[辭讓之心]이다.
④ 을: 지(智)를 실현하려면 잃었던 마음[放心]을 되찾아야 한다.
⑤ 갑과 을: 도(道)에 따라 살기 위해 마음 수양에 힘써야 한다.

13. 중국 불교 사상가 갑,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마음속에 선지식(善知識)이 있어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.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선지식의 가르침도 소용없다. 참된 반야를 일으켜 관조하면 망념이 없어 지니 자성(自性)을 깨치면 단번에 불지(佛地)에 이른다.
을: 마음의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정(定)이며, 마음의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혜(慧)이다. 이를 깨달아서 정과 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, 그것은 단박에 깨친 사람이 정혜를 겸해 닦는 것이 된다.

- ① 갑: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하나가 아닌 별개이다.
② 갑: 반야로써 망념을 제거해야 청정한 자성을 형성할 수 있다.
③ 을: 불성을 단박에 깨쳐도 곧바로 궁극적 경지에 이를 수 없다.
④ 을: 마음으로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.
⑤ 갑과 을: 정혜는 모든 습기(習氣)를 단박에 제거하는 수행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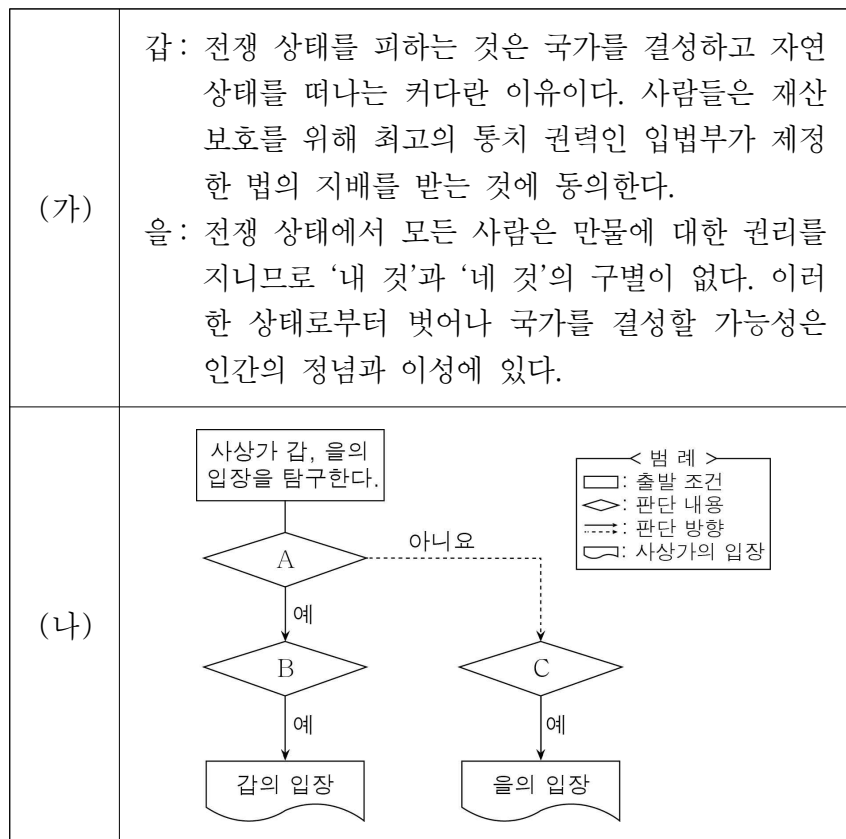
14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지식은 가장 강한 것이므로 쾌락과 다른 모든 것을 항상 이긴다. 사람이 쾌락과 고통,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선택과 관련하여 잘못을 범하는 것은 지식의 결핍 때문이다. 지식이 결핍된 사람은 쾌락에 압도될 수 있다.
을: 동일한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인 동시에 자제력 없는 사람일 수는 없다. 자신이 아는 바를 실행해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. 자제력 없는 사람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.

< 보 기 >
ㄱ. 갑: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.
ㄴ. 을: 타고난 실천적 지혜의 상실이 자제력 없음의 원인이다.
ㄷ. 을: 자제력 없는 사람은 선을 알더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.
ㄹ. 갑과 을: 덕을 갖추는 것은 행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ㄷ, ㄹ
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15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

< 보 기 >
ㄱ. A: 소유권은 사회 계약이 유효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가?
ㄴ. B: 공평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가?
ㄷ. B: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하는가?
ㄹ. C: 시민의 자유는 공권력에 대한 공포와 양립할 수 있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6.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진리의 현금 가치는 무엇입니까? 즉 어떤 관념이 참이라고 할 때 그 참인 관념이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 냅니까? 참된 관념은 우리가 정당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고, 거짓된 관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관념입니다. 관념의 진리성은 그 관념에 내재하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리이게 하는 진리화 과정입니다.



- ① 자명한 지식의 발견이 유용한 지식의 산출보다 중요하다.
- ② 확고부동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.
- ③ 진리의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.
- ④ 참된 관념은 그 자체로 선하며 현금 가치와 무관한 것이다.
- ⑤ 관념의 진리성은 경험이 아닌 이성적 사유에 의해 발견된다.

17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-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기에, 그리고 우리가 신에 대한 명석판명한 관념을 갖지 않는 한 모든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우리의 최고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.
-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본질이다.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선이다.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아가면서 생기는, 선을 행하려는 욕망이 도덕성이다.

< 보 기 >

ㄱ. 무한 실체인 신은 모든 유한 실체들의 내재적 원인인가?
 ㄴ. 자연 현상을 인식하는 만큼 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가?
 ㄷ.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 아닌 이성으로서 규정되어야 하는가?
 ㄹ.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르므로 자유로운 존재인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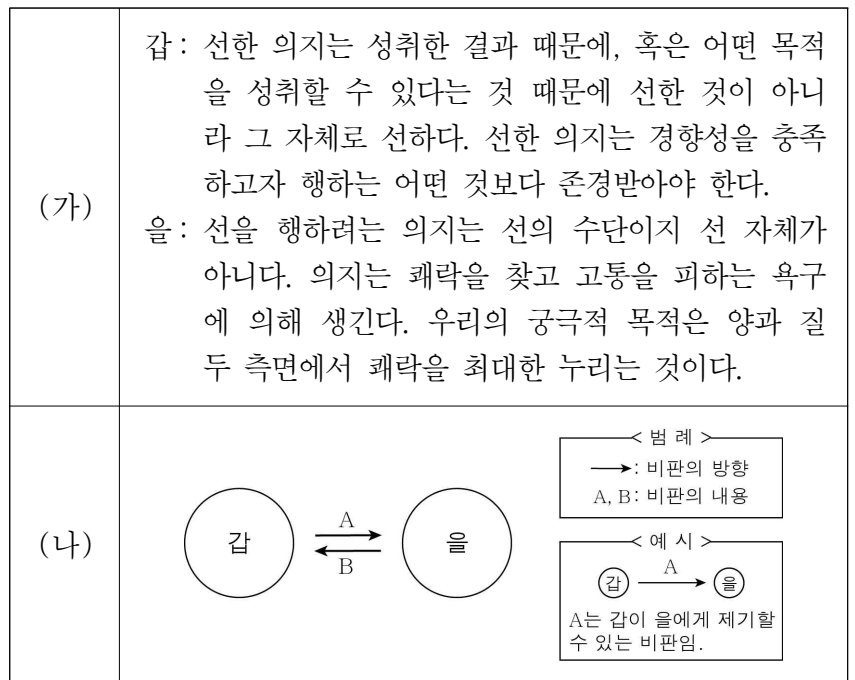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8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샘이 말라 물고기가 모두 땅 위에 드러났다. 서로 물기를 뺏어 주고 거품으로 적셔 도움을 주지만,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 더 좋다. 요임금을 칭송하고 결왕을 비난하지만, 두 사람을 잊고 도(道)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더 좋다. 도는 함이 없고[無爲] 형체가 없으며[無形] 스스로가 근본이다.

- ① 사유 활동을 멈추고 오감(五感)으로 도를 발견해야 한다.
- ② 인의를 벗어나 자연을 따르며 자유롭게 살아야[逍遙] 한다.
- ③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[心齋]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.
- ④ 성인(聖人)이 제정한 예를 따르며 무위의 덕을 실현해야 한다.
- ⑤ 제물(齊物)의 관점에서 시비를 분별하고 인륜을 구현해야 한다.

19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,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

- ① A: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일으킬 수 없음을 간과한다.
- ② A: 개인의 자기희생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.
- ③ A: 행복을 위한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가 없음을 간과한다.
- ④ B: 선한 의지를 갖춰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간과한다.
- ⑤ B: 의지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아님을 간과한다.

20. 이상 사회에 대한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며 10년마다 추첨을 통해 집을 바꾼다. 사유 재산이 없고 물품이 풍족하여 사람들이 허영심을 가지지 않는다.

을: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가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나타난다. 이 연합체 안에서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이자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.

- ① 갑: 물질적 재화가 풍부하지만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간다.
- ② 갑: 법률과 제도는 없지만 사회 질서가 자율적으로 유지된다.
- ③ 을: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이 국가에 의해 완전히 보장된다.
- ④ 을: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동 노력으로 노동 소외가 사라진다.
- ⑤ 갑과 을: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다.

*** 확인 사항**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